

보도해명자료

('16. 12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정부-업계, TPA(테레프탈산) 사업재편 엇박자”

('16.12.27, 동아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업계는 ① 이미 TPA 설비 전환이나 물량 감축을 마친 상태이고,
② 상황도 개선되어 추가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반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현재, 업계*는 TPA 분야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지속되고 있어
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

* 한화종합화학, 삼남석유화학, 태광산업, 롯데케미칼, 효성 등 5개사

- ① 내수 대비 높은 설비 비중(233%), ② 중국 자급도 상승(142%)에
따른 對중국 수출 급감, ③ 수입규제 확대로 사업재편 필요성 지속

- ① 국내 TPA 설비는 총 585만톤으로 내수 251만톤('15년) 대비 233%
② 對중 수출(백만불) : ('11) 3,702 → ('12) 2,872 → ('13) 1,845 → ('14) 596 → ('15) 197
③ 중국 반덤핑 관세율 최대 3.7% 부과('10.8월), EU 반덤핑 조사 개시('16.8월)

- ☐ 최근 TPA 가격의 소폭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원료인 파라
자일렌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마진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

* TPA 가격상승 원인 :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가수요 영향, 라니냐로 인한
면화가격 상승으로 중국 폴리에스터 공장 가동률이 10%p 이상 상승 등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 (044-203-4280)
한종호 사무관 (044-203-4284)